

- 주요 뉴스: 미국 10월 ISM 서비스업 PMI, 전월비 상승. 연준 마이턴 아서는 금리안하 주장
 - 미국 섯다운, 일부 낙관론 속 역대 최장 기록. ‘미니’ 지방 선거에서는 민주당 압승
 - 미국 대법원, 관세 부과에 다소 회의적. 재무부는 당분간 현행 국채 발행 규모 유지
 - 중국, 對美 관세 휴전 조치 이행. 10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는 전월비 하락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주요 경제지표, 증시 자가 매수 유입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4%],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전일 주가 하락에 따른 자가 매수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자동차 관련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차익 매물 출회, 관세 관련 대법원의 회의적 시각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위험자산 선호, 중장기 국채 공급 증가 가능성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 시장 영향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38.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0.8원, 0.59% 하락). 한국 CDS 약보합

		11/5일	11/4일	전일대비			11/5일	1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96.3	6,771.6	+0.37%	국채 금리 10y	미국	4.16%	4.09%	+7bp
	유럽	571.90	570.58	+0.23%		독일	2.67%	2.65%	+2bp
	중국	3,969.2	3,960.2	+0.23%		영국	4.46%	4.43%	+4bp
	일본	50,212	51,497	-2.50%	CDS 5y	한국	23bp	23bp	-0bp
	한국	4,004.4	4,121.7	-2.85%		중국	42bp	42bp	-0bp
환율	달러지수	100.16	100.22	-0.06%	위험 지표	EMBI+	-	281	-
	유로화	1.1492	1.1482	+0.09%		VIX	18.01	19.00	-5.21%
	엔화	154.12	153.67	-0.29%		WTI유	59.60	60.56	-1.59%
	위안화	7.1268	7.1295	+0.04%	원자재	구리	498.8	494.9	+0.79%
	원화	1,449.4	1,437.9	-0.79%		금	3,979.6	3,932.1	+1.2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0월 ISM 서비스업 PMI, 전월비 상승. 연준 마이런 이사는 금리인하 주장

- 10월 ISM 서비스업 PMI는 52.4를 기록, 전월(50.0) 대비 상승.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와 활동지수 등이 양호했고, 지불가격지수는 3년 만에 최고 수준. 고용지수의 경우 전월에 비해 상승(47.2→48.2)했으나 여전히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하여 부진한 모습
- 10월 ADP 민간고용은 전월비 4.2만명 늘어 예상치(2.5만명) 상회하며 전월(-2.9만명)의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 임금은 전년동월비 4.5% 상승.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용이 연초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에 12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평가(BMO)
- 뉴욕 연은에 따르면, 3/4분기 가계 채무는 18.6조달러로 전기비 1%(0.19조달러) 늘어 증가세가 다소 안정되었다고 평가. 다만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연체율은 4.5%로 '20년 1/4분기 이후 최고치. 일부에서는 가계 채무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낮다며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
- 한편, 연준 마이런 이사는 현행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며, 이는 경기 부진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12월 FOMC에서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베센트 재무장관도 연준이 금리인하를 거부하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경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부 부문은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참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셧다운, 일부 낙관론 속 역대 최장 기록. '미니' 지방 선거에서는 민주당 압승

- 11/5일에도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의 기록 경신. 다만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 민주당에서 의원들의 자유 표결을 허용하고, 이에 몇몇 민주당 상원의원이 예산안 찬성에 표를 던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관론 표명
- 한편,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핵심 지역(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뉴욕 시장)에서 모두 승리. 이번 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반영된 성격이 짙다고 분석

■ 미국 대법원, 관세 부과에 다소 회의적. 재무부는 당분간 현행 국채 발행 규모 유지

- 대법원은 관세 부과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개최. 대부분의 판사들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통한 대대적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월권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었고, 트럼프 측 변호인에 회의적 의견 피력
- 재무부가 공개한 국채발행계획(QRA)에 따르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채입찰 규모는 현행 수준 유지할 방침. 또한 최소한 향후 몇 분기에도 기존 규모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다만 이후에는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 발신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등을 경계. 금리인하 필요성 크지 않음을 시사

-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나겔 위원은 역내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정착되고 있다는 일부 평가에 부정적 의견 피력.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렌 위원 역시 경제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이러한 발언들은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

■ 중국, 對美 관세 휴전 조치 이행. 10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는 전월비 하락

- 미국 측이 10일부터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인하(20%p→10%p)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 당국은 이번 조치가 양국의 협상 성과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10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전월(52.9) 대비 하락. 이는 경기 둔화와 길었던 연휴 기간의 영향으로 추정. 고용 둔화 및 기업 수익성 악화도 지속

■ 일본은행, 금리인상 여건 조성. 다만 경제 하방 위험 등으로 인상에는 신중함 요구

-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요지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미국 등 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6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이사-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및 필라델피아 연은 폴슨 총재 발언
- 미국 10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미국 경제의 K자형 양극화 심화에 기여 - 블룸버그

(How the Fed can change the K-shaped economy)

- 최근 수년 긴축적 금리정책은 계층 간 소비 격차 확대를 유도.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필연적으로 가계 간 격차 확대를 초래. 일례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22년 이후 저소득층 실질 소비는 정체되었고, 고소득층이 전체 소비증가를 견인. 이러한 불균등은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발생
- 금리는 재정정책보다 정밀성이 떨어져 특정 계층 지원이 어려우며, 통화 긴축은 '아래에서 위로' 경제활동 둔화를 초래. 최근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된다는 점은 금리가 여전히 제약적 수준임을 시사. 향후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소비 및 투자 증가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미국 국채로의 자금 이동, 주가 조정 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Flight to Treasuries Shows Some Fear Stock Slump Has Room to Run)

- 이번 주, 기술주 고평가 우려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증가. 기업 가치 및 자본지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 미국 섯다운, 일부 부진한 경제 지표 등이 이어지고,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험회피 심리는 장기화될 소지(TD Securities)
- 글로벌 주가의 추가 하락 경고(Goldman Sachs, Morgan Stanley's 등)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채권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예상. 만일 주가 조정이 계속된다면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또한 이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8%로 하락하고, '26년 말에는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DBS, TD)

■ 미국 트럼프 집권 1주기, 금융시장은 적응한 양상이나 일부 우려 요인도 존재 - 블룸버그

(Remember, Remember, the Fifth of Nov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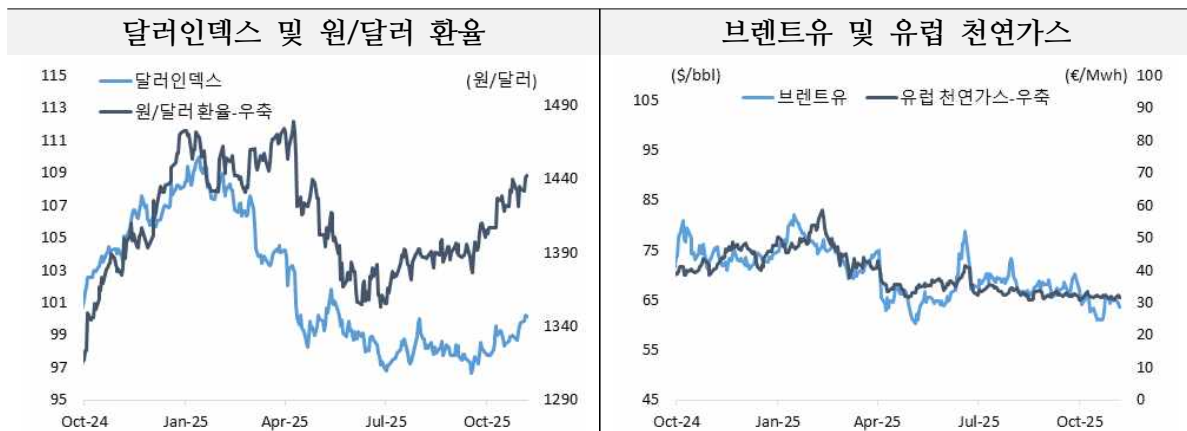
- 작년 트럼프의 11월 대선 승리 이후 잠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증가. 그러나 유가 하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산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은 트럼프 2기에 적응하는 모습. 트럼프의 유럽에 대한 방위 부담금 인상 시도는 유럽 증시의 방위 관련주 수혜로 이어졌고, AI 붐으로 매그니피센트 7 주가도 상승
-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나, 현재로서는 관련 영향이 다소 제한적. 또한 달러화 변동성은 작년 11월 대선 승리 당시보다 낮아졌으며, 관세정책에 대한 불안도 대부분 해소. 일각에서는 이를 시장이 트럼프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신호로 해석. 다만, 관세와 금리인하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과열 우려는 상존

- **美 대법원의 관세 심리, 다양한 무역규칙 고려 시 관련 영향 제한적일 소지 - NYT**
(Almost Half of U.S. Imports Now Have Steep Tariffs)
 -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정책을 시행. 이에 수입품의 절반 정도에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위법성 여부를 심리. 그러나 일부 관세는 대법원의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전체 수입품의 16%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전망
 - 또한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져도 對美수출 국가에 다양한 무역규칙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특히 중국에는 대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고관세 유지될 가능성. 유럽산 수입품은 대부분 심리 대상이어서 혜택이 있을 소지. 자동차, 목재 등 일부 특정 제품군에도 기존 관세 유지될 전망
- **미국 증시, AI 버블 붕괴 현실화 시 피해는 가계 자산의 8% 규모로 추정 - 블룸버그**
(How much wealth would be destroyed by an AI stockmarket crash?)
- **미국 노동시장(低실업률 vs 고용 정체), 이민정책으로 해석 어려운 상황 - Financial Times**
(Immigration policy leaves economists struggling to decipher labour market)
- **글로벌 증시, 시장 펀더멘털 정상화 시 개인 투자자 참여는 줄어들 전망 - 블룸버그**
(RIP junk rally?)
- **유럽의 국방비 지출 확대, 부양 효과 가시화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 Financial Times**
(Will higher defence spending boost the European economy?)
- **일본, 미국과 이전과는 다른 파트너십(이타적·협력적→거래적) 구축 - Financial Times**
(Japan comes to terms with new US relationship)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